

2017. 10. 28.(토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

I · SEOUL · U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서울디자인재단
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

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 국장	정소익	2096-0108 010-8578-0435
홍보 담당자	김나연	2096-0156 010-2035-1447

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: 4쪽

돈의문박물관마을 무료개방에 기념품 증정 이벤트까지

놓칠 수 없는 마지막 서울비엔날레 즐기기 꿀팁은?

- 〈세계총괄건축가포럼〉, 〈플레이어블시티〉... 서울비엔날레 폐막주간 행사 풍성
- 28일(토)부터 폐막(11월 5일(일))까지 돈의문박물관마을 무료 개방

- 다음달 5일(일) 성황리에 폐막을 앞둔 「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」 (이하 약칭 서울비엔날레)가 세계총괄건축가포럼, 뮤직시티 등 다채로운 폐막 주간 행사와 무료개방으로 막바지 열기를 이어간다.
-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은 폐막 주간을 맞아 28일(토)부터 폐막일인 다음달 5일(일)까지 서울비엔날레 주전시장인 서울 종로구 돈의문박물관마을을 무료 개방한다.
 - 돈의문박물관마을은 도시재생방식으로 재조성한 역사문화마을로, 서울비엔날레의 〈주제전〉 전시와 현장프로젝트 〈식량도시〉의 비엔날레 식당 등을 관람할 수 있다.
 - 서울비엔날레 기념품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. 31일(화)까지 공식 페이스북(www.facebook.com/seoulbiennale)에 소개된 돈의문박물관마을 인생샷 포인트에서 인증샷을 찍고 자신의 타임라인이나 댓글로 #돈의문박물관마을인생샷 해시태그와 함께 올리면, 추첨을 통해 총 20명에게 서울비엔날

레 공식 굿즈(에코백+노트+연필) 세트를 증정한다.

- 동대문디자인플라자(DDP) 전시의 경우 티켓오피스에서 티켓 2매를 정가로 구입하면 서울비엔날레 공식 굿즈인 <2년 달력 - 2 YEAR CALENDAR(1만5000원 상당)>을 받을 수 있다. 2017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마다 열리는 서울비엔날레 주기에 맞춘 달력으로 건축 도면의 그리드를 활용해 만들었다.

□ ‘공유도시’를 주제로 열리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들도 놓치지 말자. 다음달 3일 (금) 돈의문박물관마을 도시건축센터에서는 세계 각지의 다양한 총괄건축가들의 도시 건축 사례들을 연구하고 탐색하는 <<세계총괄건축가포럼>>이 진행된다.

- 이번 포럼에는 바르셀로나, 메데인 등 각 도시의 총괄건축가들이 참여하며, 도시를 변화시키는 건축 프로젝트의 역할을 살펴보는 시간이 마련된다.
- 일반 시민도 참관할 수 있으며 동시통역이 제공된다. 참여를 원하는 경우 서울비엔날레 공식 홈페이지(seoulbiennale.org) 내에서 사전 신청하거나 현장에서 접수하면 된다.

□ 서울비엔날레 현장프로젝트인 ‘똑똑한 보행도시’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뮤직시티(Musicity)와 플레이어블시티(Playable City)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.

- 뮤직시티는 시민들이 음악과 소리로 도시를 새롭게 만나는 프로젝트로 뮤지션들이 특정 장소에서 받은 영감으로 음악을 작곡하거나 사운드 설치 작업으로 표현했다. 서울로2017, DDP, 세운상가 등 정해진 7개의 장소를 방문한 후 모바일로 뮤직시티 홈페이지(www.musicityglobal.com/ko/cities/seoul/)에 접속하면 가브리엘 프로코피에브(Gabriel Prokofiev), 한나 필(Hannah Peel), 장영규 등 7명의 뮤지션의 음악을 들으며 새로운 도시풍경을 상상할 수 있다.
- 플레이어블시티는 영국 서부 항구 도시 브리스톨의 복합예술공간인 워터셰드(Watershed)에서 시작한 시민 참여형 도시게임으로, 테크놀로지, 예술, 놀이

가 결합된 창의적인 즐거움을 제시한다. 27일(금)~29일(일)세운상가 및 청계천, 세운교 주변에서 진행되며, 현장에서 신청해 참여할 수 있다.

-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 관계자는 “뮤직시티와 플레이어블시티는 빠른 도시의 변화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예술을 통해 보행도시로서의 서울을 새롭게 바라보고 느낄 수 있는 색다른 행사”라면서 “폐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폐막 전후로 진행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서울비엔날레를 끝까지 즐기기 바란다”라고 말했다.

- 한편,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이 주최하는 「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」는 다음달 5일(일)까지 돈의문박물관마을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(DDP) 등 도심 곳곳에서 열린다.
 - 서울비엔날레 사무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222,650명(10월 25일 기준)이 서울비엔날레를 관람했으며, 암스테르담 부시장단, 타이베이시 부시장단, 안희정 충남도지사, 박영선 국회의원, 염수정 추기경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방문해 의미를 더했다.

【별첨자료1】

□ 사 진 :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세계총괄건축가포럼 포스터 이미지



① 다음달 3일(금) 서울 종로구 돈의문박물관마을에서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세계총괄건축가포럼이 열린다. 해당 이미지는 세계총괄건축가포럼 포스터

사진출처: 서울디자인재단